

##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의 ‘소통·공감·보살핌윤리’\*

이인경\*\*

1. 머리말
2.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의 의미 해석
3. 보살핌윤리와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의 현재성
4. 마무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 교육이 인간의 도덕적 상상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것이다. 그 결과 이 설화 속에는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통·공감·보살핌윤리”가 녹아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공의 잘못을 징계하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산신령은 남성 산신으로서의 면모를 주인공의 처지를 공감하며 보살피는 호랑이는 여성 산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바, 산신령은 정의의 윤리를 호랑이는 보살핌의 윤리를 각각 실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설화에 등장하는 총각은 먼저 호랑이에 대한 공감을 보인 덕분에 산신령의 징벌을 면할 수 있었고, 호랑이는 총각과의 수평적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보살핌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서사전개는 일정한 현재적 의미를 지니는바, 행정의 주체와 시민 모두가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동체에 뿌리내릴 때에 그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부교수(한국문화와문화전략연구소).

할 수 있음을 본다. 이렇게 볼 때,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는 독자의 도덕적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매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핵심어 : 호랑이설화, 소통, 공감, 보살핌윤리, 문학교육, 도덕적 상상력

## 1. 머리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설화를 통한 문학교육이 인간의 도덕적 상상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다. 설화는 독창적인 개인 창작서사와는 다르게, 참여자의 감정이입을 통한 문화적 공유를 매개로 전승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설화는 그것을 전승하는 문화공동체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연행과정을 통해서 재생산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되어온 설화의 의미를 현대의 독자가 어떻게 재해석해 내는가의 문제는, 문화공동체 안에서의 해당 설화의 생명력 문제로 귀결된다. 현대인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현재적 삶에 유의미한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설화라면 지속적인 전승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승자(독자)들이 구비설화에 대해 누리는 해석의 무한한 자유는 그 편 폭이 깊고 넓어질수록 다양하고 풍부한 설화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sup>1)</sup> 반면에, 주관성에 현저히 매몰된 해석자의 왜곡된 시선에 의해 해당설화의 주제에 대한 오해를 양산하기도 한다.<sup>2)</sup> 이는 모든 해석자의 설화 해석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학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설화를 함께 감상해보는 해석공동체가 제기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실제로 모두 다 서사적 진실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그들

1) 이인경,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다층적 의미 -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25, 국문학회, 2012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이인경, 「<구북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20, 국문학회, 2010 등에서 그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내리는 윤리적 판단이 진실로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빈번히 제기되곤 한다.

학생들의 설화감상문을 분석해보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역동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가치 있고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sup>3)</sup> 그러나 수용자 중심의 문학교육은, 문학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지나치게 허용함으로써 작품텍스트의 실상을 왜곡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난점을 지닌다. 따라서 수용자의 자유로운 설화해석을 전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심리치료를 위한 목적에서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겠으나, 문학작품의 수용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을 길러내려는 인문학적인 교육목표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일방적인 통제와 간섭을 통해 설화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시각을 강제로 교정하려는 시도 역시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학생이 교육자의 해석을 수용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학생 자신의 가치관을 교정하여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4)</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화작품에 대한 치밀한 문학적 분석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가 질과 양의 면에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승자(독자,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해당 설화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견 서사전개와 주제가 매우 단순해 보이는 까닭에 해석자가 각자의 주관성에 따라 넓은 편폭의 해석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설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물이다. 이처럼 풍부하게 전승되어온 탓에 호랑이설화는 일찍부터 장덕순,

3) 그렇지만 설화감상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작성된 ‘설화감상문’에 담긴 작품해석은 심리진단 도구로서의 의미와 효용을 지닐 뿐, 그 속에 담긴 작품해석의 정확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학술적 점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4) “수용은 믿음과는 그다지 탄탄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다. 문학은 주로 수용의 세계에 가깝다. 더구나 수용한다고 해서 태도가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14, 문학교육학회, 2004, 73면.

최인학, 손동인, 장병호 등 先學들의 학문적 주목을 받아왔으며 주로 유형 분류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조명되어 왔다.<sup>5)</sup> 근래에는 김기호가 호랑이 설화를 대상으로 다수의 논의를 펼친 바 있는데 여전히 유형론 차원의 논의에 치중하고 있다.<sup>6)</sup>

한편 이지영은 호랑이 신격의 兩性的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sup>7)</sup> 김수현은 문헌에 등장하는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을 추적하였다.<sup>8)</sup> 그리고 최근에 서대석은 <호랑이형님>, <포수와 호랑이>, <호랑이와 꽃감> 설화를 대상으로 그 속에 담긴 민중의식을 치밀하게 분석해낸 바 있다.<sup>9)</sup>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할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찾기 어려웠는데, 박혜숙의 연구에서 유사한 구비설화가 거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10)</sup>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을 바꾸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호랑이설화 유형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을 시도하지 않고 설화작품을 ‘유형’이 아닌 ‘각편’의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해석해보기로 한다. 즉, 설화 각편을 완성된 주제의식을 구현한 ‘한 편의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간주하고 해석학에 입각하여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sup>11)</sup> 유형론 차원의 논의에서는 설화유형이 공유하는 요소에 주목하여 논의를 하게 됨으로써, 개별 각편 차원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소홀해지곤 한다. 각편들의 분석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유형론 차

5) 이렇게 이루어진 한국 호랑이설화의 성격과 주제적 특징에 대한 유형분류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기호의 논의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기호, 「한국 호랑이 설화의 주제별 유형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5,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6)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형상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을 비롯하여 호랑이설화를 대상으로 다수의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 대한 김기호의 논의는 찾지 못하였다.

7) 이지영, 「女·男 山神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 연구 -호랑이의 兩性的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37~282면.

8) 김수현,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어문학연구』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197~227면.

9) 서대석, 「호랑이이야기」,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192~209면.

10) 박혜숙, 「호랑이 이야기의 아이러니」, 『동화와 번역』12,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107~128면.

11) 본고에서는 해석학 중에서도 특히 한스 가다머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원의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서 발견된 “소통과 공감”이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문학교육의 과정을 통해 후속세대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고 자연스럽게 내면화됨으로써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12)</sup>

## 2.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의 의미 해석

본고에서 고찰할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는 일반인을 위한 대중서로 출간된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라는 책에 수록된 것이다.<sup>13)</sup>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육용 자료로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와 유사한 갈등구조를 지닌 구비설화 각편을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도 두세 편 가량 찾을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서사전개를 통해 구현된 주제의식의 차이와 갈등구조의 형상화에서 나타난 문학적 완성도를 고려해볼 때에, 이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표준어로 정제되어 있는 텍스트가 교육매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설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스토리텔링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타인들과의 교류와 교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앞에서 밝힌 대로 이야기에는 보편성이 있다. 이야기에는 고대에서 현재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에서나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 원형(Archetype)들이 있다.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민용,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기능』, 『독일언어문학』43, 한국독일언어학회, 2009, 229면.

13) 서경오,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2, 현암사, 2004, 47~51면

14) 『구비대계』 5-2, 김현녀 구연,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549면)과 『구비대계』 4-1, 맹연순 구연, 「깔끔한 부자」(552면) 두 편은 주인공이 총각이 아닌 여성으로 되어있고 조왕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서사전개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갈등구조가 본 연구대상 설화와 유사하다. 이에 비해 『구비대계』 7-4, 백을분 구연, 「탁물부인의 걱정」(196면)은 서사가 매우 압축되어 있어서 갈등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본 연구대상 설화와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 〈호랑이가 준 보자기〉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살았어. 살림이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산밭이나 일귀 먹으면서 살았지. 집이라고 있는 게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한 칸인데, 어찌나 허술한지 뒷간도 없어. 뒷간이 없으니깐 어떻게 해? 오줌, 똥이 마려우면 그냥 한테 나와서 짹 짹 갈긴단 말이야. 텃밭이고 거름더미고 마당이고, 그게 다 뒷간인 셈이지. 혼자 사는 총각이니까 뭐 거리낄 것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마당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을 것 아니야? 매운바람이 췌췌 부르는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 신을 신고 나오는 게 좀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는 이 총각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다 대고 오줌을 똥어. 하도 추우니까.

그랬더니 뒷산 산신령님이 그만 노하셨어. 신령님 계신 산에다 대고 버릇없는 짓을 해 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저 게으르고 버릇없는 놈을 혼내 줘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산신령님이 뒷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명을 내리기를.

“네 가서 저놈을 혼내 줘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 줘.”

했겠다.

그래서 호랑이가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왔어. 뒷산 덩굴 속에 숨어서, 또 버릇없는 짓을 하면 단단히 혼내 줘야지 하고 버르고 있는데 마침 총각이 뒷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거든, 그러고는 전에처럼 오줌을 눈단 말이야. 그걸 보고 호랑이가 덩굴 속에서 막 뛰쳐나오려는데,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 고 하니,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 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거든. 아,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못 덤벼들지. 저 걱정해 주는 사람을 어찌 해코지하겠어? 막 덤벼들려다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그냥 돌아갔어. 먼데서도 누가 뭘 하는지 뻔히 다 아는 산신령님은 호랑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것도 환히 알았지.

“버릇없는 놈을 혼내 주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도 질 걱정해 주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해 치겠습니까?”

“그렇더니? 그러면 그냥 두길 잘 했느니라.”

그런데 며칠 지나서 호랑이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또 총각이 오 줌을 누리 나와서는,

“에 추워, 에 추워,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 줘도 이렇게 추운 데,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혼잣말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그러고, 지날 때마다 그러니 이 호랑이가 그만 감동을 했어.

‘날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호랑이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령님께 고하기를,

“신령님, 그 총각이 오줌을 아무 데나 뉘서 그렇지 마음은 비단결 같습니다.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운듯하니 좀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산신령님이 요술보자기를 하나 줬어. 총각한테 갖다 주라고 말이야.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랄 테니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그 요술보자기를 슬며시 갖다 댔지.

그 이튿날 총각이 나무하러 가다 보니까 길에 하얀 보자기가 하나 떨어져 있거든. 주웠지. 주워 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머리에 둘러썼어. 머리에 보자기를 둘러쓰면 얼추 바람은 막아 주니까 쓸 만하지. 그러고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하 이것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네. 그 보자기를 둘러쓰니까 옆에서 말소리가 막 들려. 어찌고저찌고 수다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 말이지.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은 없고 참새가 몇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들리는 말소리가 바로 그 참새들 소리더라. 호랑이가 갖다 놓은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지. 그것만 둘러쓰면 새가 지저귀는 말이 다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가만히 들어 보니 참새들이,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넌마을 김침지네는 외동딸이

다 죽어 가는데도 손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라.”

“그러게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천 년 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이라니, 원.”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도 나을 텐데, 쫓쫓.”

하고 짹짹 씹어 먹었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건넌마을 김침지네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은 앓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는 근심에 싸여 한숨만 쉬고 있더라. 총각이 그 집에 썩 들어가서,

“내가 이 댁 따님을 살릴 방도를 가지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이 뭐 어찌겠어? 여태 좋다는 약은 다 써 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보여도 낫지 않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목숨만 살려 주게나.”

목을 빼고 총각 분부만 기다리는 판이지.

“쇠젓가락 한 짝과 사다리를 갖다 주시고, 이 집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고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시오.”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주니깐 총각이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어. 용마루를 툇 걷어 내니까 거기에 흥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더라. 그놈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다 기름에 던져넣었지. 그렇게 해서 지네가 죽으니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딸이 부스스 털고 일어나 앉더라.

그렇게 외동딸 목숨을 살려 놓으니 어떻게 되겠나. 경사 났다고 당장 잔치판이 벌어지고 총각은 귀인 대접을 받는 거지. 그 집에서 총각을 사위 삼으려고 한 건 정한 이치 아니겠어? 그래서 총각은 참한 색시 얻어 장가들고, 처가에서 논마지기나 툇 떼어 주니 가난도 면하게 됐어. 집에 뒷간도 짓고 요강도 장만해서, 이제는 겨울밤에 뒷산에다 대고 오줌 누는 일도 없어지고, 가끔 새 소리 듣고 남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살았지. 이게 끝이야.



## 2.1. ‘女山神 또는 그의 使者’로서 호랑이의 형상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등장하는 설화가 아주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호랑이를 산신, 산주(山主), 산군(山君), 산주인으로 부르며 무섭고 두려운 호랑이를 신격화하여 인간의 친근한 조력자로 변환시키고자 한 민중의 신앙의식을 볼 수 있다.<sup>15)</sup> 박혜숙은 다음과 같은 설화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는 “호랑이 산신령을 숭배하는 가난한 여자가 호랑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산신숭배의 공감주술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신을 돕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호랑이라는 자연물을 초극하는 방식의 하나가 호랑이 숭배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대자를 조력자로 환치한 것”이라고 논술한 바 있다.<sup>16)</sup>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여자가 오줌이 마려워도 너무 춥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 오줌을 누었다.

“아이구! 추워라. 안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울까?”

오줌을 누고 이렇게 군담을 하지만 부엌신인 조왕은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이어서 호랑이 산신한테 쫓아가 이 여자를 잡아가시라고 간청을 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부엌문을 열고 가만히 보니 여자가 김불더기 속에서 부시럭거리다 뉘를 열고 나와 또 오줌을 누면서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까?”라고 또 군담을 하는 것이다. 기특하다고 생각한 호랑이가 그 후로 산짐승을 자주 잡아다 주자 여자 집은 살림살이가 차차 좋아졌다.<sup>17)</sup> 그러자 여자는 끼니도 잘 잇고 나무도 해다 떼고 웃도 잘 마련해 깨끗이 빨아 입고 부엌도 깨끗이 쓸면서 잘살았다.

15) 이지영, 「女·男 山神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 연구-호랑이의 兩性的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37~282면 ; 박혜숙, 「호랑이 이야기의 아이러니」, 『동화와 번역』12,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117~118면.

16) 박혜숙, 윗글, 117~118면.

17) 여기까지는 박혜숙, 윗글, 117면에서 『구비대계 5-2』, 김현녀 구연, <산신(山神)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 549~550면의 내용을 축약하여 표준어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 뒤의 내용은 필자가 덧붙인 줄거리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와 위의 설화는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등장인물과 서사적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 설화에서 과부의 배설행위는 개인의 부엌이라는 私的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서 총각의 배설행위는 산속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과부의 행위는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총각의 행위는 산신을 노엽게 하였다.

	<호랑이가 준 보자기>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
주인공	홀로 사는 가난한 총각	가난한 여자
문제행동	가난해서 뒷간이 없음 너무 추워서 뒷산에 배설함	가난해서 헐벗어 추위 때문에 셋문을 열고 부엌에 배설함
피해자	산신령	조왕신
심판자	산신령	호랑이 산신
징벌수행자	뒷산 호랑이	호랑이 산신
지원물품	요술보자기	산짐승
결과	결혼한 후에 뒷간 마련함, 새소리 듣고 남 좋은 일 하며 잘살게 됨	살림이 나아져 청결히 하며 잘살게 됨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에서 부엌에서의 여인의 배설행위는 단지 가난만이 아니라 게으름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각편에서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서처럼 뒷간이 없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먹는 음식을 마련하는 공간인 부엌은 주부가 청결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여인은 옷이 얇아서 추위에 떨며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셋문을 열고 부엌에다 소변을 본다. 따라서 부엌에서의 여인의 방뇨행위는 추위에 떨며 뒷간까지 가는 고생스러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도 이해될 만하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게으른 여인

이 호랑이산신님을 걱정한 덕분에 공짜로 산짐승을 얻어 살림이 나아지자 옷을 잘 입고 부엌 청소를 잘하게 되었다는 서사전개는 구성의 유기성에 있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반해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서는 문제적 상황(뒷산에 마구 배설하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뒷간 마련) 서사가 종결되는 서사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 두 편의 설화를 박혜숙의 논의에서처럼 “동물숭배”나 “공감주술적 행위”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만족한다면, 이 설화의 인문학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두려운 대상을 일방적으로 “숭배”함으로써 그의 加護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화적 주제의식은, 현대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가치관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신화적 주제의식은 인간의 주체적 자아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할 도덕적 상상력을 촉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탐색하려면 서사적 완결성을 잘 갖추고 있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를 대상으로 삼아 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 설화에서는 가난해서 뒷간도 없는 총각이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데, 산속에서 아무 데나 용변을 보는 총각을 보고 노여워한 산신령이 호랑이를 시켜 총각을 혼내주려는 데에서 서사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총각, 산신령, 호랑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호랑이 신격과 산신의 상관성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고찰한 바 있는 이지영은 다음과 같이 논증한 바 있다.

호랑이 신격은 원래 여성과 남성의 兩性的 측면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형적 표상으로서 大母神(The Great Mother) 이 창조신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가 山神으로 나아갔을 것이며, 여산신의 전통이 선행한 뒤에 이후로 女·男·동물신격의 공존 형태가 實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헌에 나타나는 여산신과 동물신격의 관련성을 볼 때, 우리의 女山神도 새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을 使者로 부릴 수 있음을 현전하는 산신도나 무신도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산신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호랑이가 산신으로서 숭앙받았음을 알 수 있다.

<김현감호>에서 보듯이 호랑이는 산신적 면모를 갖고 있으며 남녀양성을 具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을 보호하는 희생성, 자애, 모성성 등은 여성성으로, 살생의 욕망과 같은 포악성은 남성성으로 표상되거나, 후자의 포악성이 문제가 되면서부터 호랑이가 퇴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산신이 남성산신화하면 모성성은 희박해지고 그 대신에 남성적 성격의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문헌과 구전설화에서 호랑이가 산신이거나 혹은 산신의 使者 노릇을 하는 경우에는 포악성이 없고 자애와 모성애를 발휘한다.<sup>18)</sup>

이런 이지영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볼 때,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모성애를 실현해가는 자애로운 여성 산신의 형상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 설화에서 산신령은 총각이 기거하는 산을 관장하는 최고 권력자로서 상벌을 주관하는 심판자(법, 규범)이며, 호랑이는 산신령의 使者로서 산신령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실무담당자(행정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산신령의 명에 따라서 호랑이가 총각을 징벌하려는 순간,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라는 총각의 발화에 호랑이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법 집행을 보류한 채 그냥 되돌아온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호랑이는 총각을 조우하게 될 때마다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에 대한 징벌을 철회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총각을 도와주려고 나선다. 요컨대, 이처럼 총각을 살생하라는 산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섰던 호랑이가 결국에는 총각을 보호하고 그를 돕는 母性性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살생의 욕망과 같은 포악성으로 드러나는 남성성보다는 자애로운 여성성을 보여주는 女山神이나 使者의 모습을 띠고 있다.

18) 이지영, 「女·男 山神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 연구-호랑이의 兩性的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 2.2. ‘산신-총각-호랑이’ 사이의 소통과 공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학생의 설화감상문에서부터 촉발된 것이다.

박규리(가명, 여, 23세)

나는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난한 총각은 날씨가 추워지자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오줌을 산 쪽으로 배설하는 것을 반복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총각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몰상식하고 게으름의 표현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산신령이 화가 나서 호랑이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 줄 알기라도 한 듯 총각이 호랑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총각은 그냥 내뺐은 말인데 호랑이는 착각한 것이다. 총각의 진심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는 감동을 하여 산신령에게 고하고 보자기를 총각에게 주었다. 총각은 가만히 앉아 로또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총각은 좋은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자기 덕분에 새들의 정보로 부잣집 김침지네 외동딸을 구하고 아내와 부를 함께 획득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총각이 가난할 때는 예의가 없고 무식한 행동을 하며 살았으면서 부를 얻고 나서는 예의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우습다. 부가 곧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인가?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의 위용에 맞설 수 없는 이 시대엔 총각은 거지꼴을 면치 못했을 것인데, 시대를 잘 만난 총각은 복 받은 사람이다.

위의 감상문에서 보듯이, 박규리는 호랑이를 향한 총각의 진정성을 끊임 없이 의심한다. 타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공감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박규리의 심리적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이 감상자의 시각에 따르면, 이 설화에는 긍정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몰상식하고 게으른 총각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징치되기는커녕 호랑이를 의도적으로 기만한 덕분에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듯이 공짜로 재물과 아내를 얻

은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황당한 이야기이다. 게다가 호랑이는 이런 사악한 총각에게 속아서 징벌이 아닌 부당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멍청한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그저 돈 때문에 생겨난 부조리한 상황으로 최종 판정되고 만다. 이 부족한 총각은 아무런 선행도 노력도 한 바가 없이 부당하게 행운을 차지한 알미운 놈으로 비칠 뿐이다.

박규리가 이 설화를 해석하면서 보여준 시각은 이처럼 시종일관 철저히 냉소적이며 비판적이어서, 이 설화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박규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도대체 전승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화를 왜 지금까지 전승해왔을까 의문이다. 진정 이 설화는 각종 부조리한 세태로만 가득 차 있는 불량문학인 것일까? 그리고 ‘저급한 인격을 지녔을지라도 기만술에 능하거나 운이 따라주어서 일단 재물만 얻게 되면 만사가 행통할 것이니, 부지런히 기만술을 익히고 운을 따라다니라’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설화인 것일까?

물론 구비설화라는 갈래는 높은 교양을 쌓은 지식인들의 고급문학이 아니며, 심오한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계몽성 강한 윤리적 작품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장삼이사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온 그야말로 민중이 향유해온 기층문화인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엔 엄중한 자기성찰이나 도덕적 반성이 결여된 채로, 인간을 짓눌러왔던 각종 윤리적 금기들을 가상현실에서나마 철저히 破棄해보려는 민중의 위험한 욕망이 발칙한 상상력을 통해 여지없이 분출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설화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동물적이고 추악한 공격성이 노출되기도 함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sup>19)</sup> 그러나 마찬가지로 민중문학이라면 무조건 폄하하고 보는 지식인층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역시 동일하

19) 박희병은 민중문학이 지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중문화를 무조건 이상화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민중문화에 내재된 부정적 면모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학계가 함께 성찰해야 할 적절하고도 중요한 학문적 지적이라고 본다. 박희병, 『병신』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이런 주장은 그간 학계가 민중문학에 보여준 무조건적 찬양과 편애의 관습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특정방향으로 편향된 연구시각은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점에서, 민중문학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무조건적인 폄해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게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설화 속에는 민중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찾아낸 건강한 삶의 소중한 진실이 진하게 녹아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시 박규리의 감상문을 주목해 보자. 박규리와 이 설화 사이에는 메시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감상자는 이 설화가 발생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받기에 다소 부적합한 심리적 상황과 기대지평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박규리와 이 설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不 通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속한 현대 사회 문화공동체의 문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up>20)</sup>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 놓여있다면 개인의 문학적 상상력 역시 일정한 편향성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총각 그리고 호랑이라는 他者를 바라보는 박규리의 냉정하고 건조한 시선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상호경쟁 관계망 속에서 과편화된 分子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생리와 불안한 심리구조를 엿보게 해준다. 총각이 겪어야 하는 추위의 고통도, 호랑이를 향한 총각의 연민어린 독백도, 자신을 향한 타자의 관심에 감복하는 호랑이의 외로운 정서도 박규리에게는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낯선 타자의 것일 뿐이다. 그래서 박규리는 도저히 이해도 공감도 납득도 수용도 하기 어려운 설화적 현실을 향해 짜증스러운 냉소와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 모든 부조리한 서사전개의 원인을 부조리한 자본의 논리로서 설명해낸다.

설화에 대한 이런 해석 안에는 두 개체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이해·공감과 같은 상호작용의 매커니즘이 철저히 捨象된 채 오직 피상적으로 관찰되는 외적 변화의 결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가난해서 물염치했던 총각

20) “메시지들의 유통이 인간들 간의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의 발생과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즉, 의미의 전달이야말로 소통의 핵심이다. 의미는 단순한 언어적 과정만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속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과 기대지평,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유구한 전승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리피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3, 한림과학원, 2009, 70면.

21)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라면 문학적 상상력을 최대한 선용할 것을 호소한다 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억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에서 자기 목소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14, 문학교육학회, 2004, 74면.

이 호랑이를 “속여서 부자가 되자” 갑자기 예의를 차리고 잘살게 되었다는 부조리한 자본의 천박한 논리를 꼬집고 있는 것이다.

설화는 해석자에게 닫힌 해석을 강요하거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바, 설화의 의미는 잠재적 가능성 속에 한껏 개방되어 있다. 설화 전승자(감상자, 독자, 해석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설화작품을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설화에서 무엇을 핵심내용으로 볼 것인가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sup>22)</sup> 그것의 선택은 물론 전적으로 해석자의 자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지닌 기대지평의 수준이 편향되거나 협소하지 않고 고양되고 확대될수록, 그 설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설화문학연구는 작품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며 부단히 논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23)</sup>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작품해석들이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동시대 문화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작품해석이 널리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규리의 주장대로 총각의 무단배설 행위를 게으름이라는 개인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호랑이가 즉각적으로 총각을 징벌했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적 선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설화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죽어야 한다.’는 것일까? 그러나 이는 이 설화에 드러난 서사적 문면을

22) “허구적 서사물의 의미는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잠재적인 가능성 속에서 열려져 있다. 의미는 독자의 판단과 평가에 의해 비로소 현동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플롯 이해에는 독자 자신의 서사적 이해, 곧 텍스트 세계를 평가하고, 의미화 실천하는 양상이 그대로 투사된다. 그는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나름의 시각으로 텍스트의 의미 질서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시각에서 작품을 재정의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재정의는 주제 서술에서 무엇을 핵심 개념을 삼아 서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 이는 ‘정신 활동으로서의 플롯 이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457면.

23) “궁극적으로 국문학계가 제공해야 할 것은 새롭고도 무한히 다양하게 해석된 문학이다. 한 점을 지나는 선분의 숫자가 무한하듯, 우리는 문학을 해석하는 컨텍스트를 제한 없이 상상해내어야 한다.” 강명관, 「문학주의에서 벗어나 문학 외부와 소통하기」,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95면.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다. 사건전개를 잘 살펴보면, 총각은 재정능력이 생기자 스스로 뒷간을 지었고 무단배설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총각의 무단배설행위는 게으름이라는 개인의 기질적 결함보다는 가난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안정적인 생산수단의 부재에서 촉발된 구조적 문제였다. 말하자면 총각은 가난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죽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보편적 정의에 의해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의 집행이 총각에게 엄청나게 가해진다고 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구조적 범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인 박혜숙의 논점을 수용하여 이 설화를 해석한다면, 인간을 해치는 포악한 호랑이를 승배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총각의 공감주술적 행위가 성공한 사연이 될 것이다. 즉, 맹수인 호랑이를 두려워한 총각이 지극히 본능적인 배설행위의 순간에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호랑이를 철저히 승배하였던 덕분에, 호환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베푸는 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신화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총각은 호랑이신격을 숭앙하는 司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산신령은 왜 총각에게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 설화에서처럼 산짐승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요술보자기를 주려고 했을까? 이런 서사적 요소의 차이는 설화의 의미전개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 산신령이 준 보자기를 쓰면 총각은 참새들의 지저귀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다. 신화에서 새는 산신의 傳言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할 때에, 이 설화에서 산신은 참새를 통해서 총각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정보가 왜 하필 부잣집 딸의 臥病 소식과 그 치료법이었을까? 질병의 치료법이란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건 병자에게 필요한 정보일 뿐이지 총각 자신에게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거나 무용한 것일 수 있다. 참새가 준 정보<sup>24)</sup>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김침지의 딸을 살려주

24)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넌 마을 김침지네는 외동딸이 다 죽어 가는데도 손

면 그 집으로 장가들 수 있다거나 부자가 된다는 식의 사후보상에 대한 약속이 없다. 참새가 알려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총각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실 병의 치료법이란 병자의 고통에 주목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인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무조건적인 이타행위를 거부할 것인가는 총각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다.

박해숙이 주목했던 <산신을 위해서 복 받은 과부> 설화에서 부엌에서 소변을 보던 여인에게 거저 주어진 산짐승은 “돈” 그 자체이다. 반면, 이런 정보는 총각의 판단에 따라 전혀 無用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는 총각의 인성을 시험해보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신령은 금덩이(무상복지)가 아닌 총각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는 또한 인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를 제공한 것이다. 참새들의 말을 들은 총각은 아무 것도 계산하지 않고 “당장” 건넌 마을 김침지네 집을 찾아갔던 것이다. 이는 호랑이를 걱정해주는 총각의 지속적인 태도를 통해서, 총각이 지닌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진정성을 산신령이 통찰하였기 때문에 벌인 일일 수 있다.

또한 그 보자기가 제공해준 선물이 바로 새들의 지저귀음을 알아듣는 능력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인간과 동물과의 소통은 인간과 異類와 소통<sup>25)</sup>,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이 가져오는 생태주의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총각을 혼내주려 갔던 호랑이는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차마 해칠 수가 없어서 그냥 물러났다고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호랑이 신격을 두려워하는 총각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호랑이를 無時로 숭배하고 있는 태도에서 호랑이가 크게 감명을 받아서 내린 자비’라고 설명하고 넘

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라.” “그러게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천 년 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이라니, 원.”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도 나을 텐데, 쫓쫓.”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건넌 마을 김침지네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은 앓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는 근심에 싸여 한숨만 쉬고 있더라.

25) 이강욱, 「신라 설화에서의 존재 간 소통양상과 의미 -삼국유사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에서 이런 소통의 의미에 대해 진지한 분석을 보여준 바 있다.

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기 때문이다. 산신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 호랑이가 그렇게 제멋대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 산신령은 왜 이런 호랑이의 전횡을 용인한 것일까? 도대체 호랑이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이고 가변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이는 공정하며 정의로운 것인가? 이처럼 호랑이가 제멋대로 산신령의 명령을 어기면서 총각을 보호한 것은 실상 직무유기이거나 직권남용이 아닌가? 더 나아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민과 공감을 표출한 총각에게 포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사전개의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사건정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신령이 총각을 징벌하려 한 것은 총각의 무도한 배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여긴 탓이었다. 멀리서도 모 든 것을 다 본다는 산신령은 총각이 한 행위의 진정한 의도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산신령은 총각과 소통을 시도하거나 그의 처지에 공감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산신령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 호랑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총각의 삶의 현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뒷간도 없어서 매섭게 추운 날 그런 방식으로 배설할 수밖에 없는 총각의 딱한 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호랑이(他者)를 먼저 걱정할 줄 아는 총각의 착한 심성을 목도하게 된다.

호랑이에 대한 총각의 걱정은 무언가의 보상을 기대하는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무엇보다 총각의 독백이 어디에선가 호랑이가 엿들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증거를 설화문면에서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약자가 강자에게 보내는 것이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총각의 태도는 호랑이에 대한 일방적인 숭배의식의 표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총각의 발화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이를 자신에게 무언가를 시혜해 줄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해 아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

력이 적어 보인다.

한편 호랑이의 이런 자의적 법집행(행정처분)은 타당한 것인가? 호랑이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裁量權을 남용했던 것일까? 총각이 하는 혼잣말을 들은 호랑이는 차마 그를 해치지 못한다.<sup>26)</sup> 총각이 호랑이를 걱정해주어서 고마웠던 탓일까? 단지 그런 이유에서 직무수행을 포기했다면 이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온정주의는 정의로움과는 일단 별개일 수 있는 것이다.

총각에 대한 산신의 노여움은 무엇보다 총각의 배설행위가 산신의 신성성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산신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 총각을 징벌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상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가? 호랑이는 총각의 “아이 추워!”로 시작되는 독백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총각의 배설행위는 신성한 산신을 모독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가난과 추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저지르게 된 무의식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현장에 나가서 살펴본 결과, 총각은 공동체에 고의로 민폐를 끼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불량한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기적인 인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그는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호랑이의 추위까지도 걱정할 줄 아는 인정 많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랑이는 이런 상황맥락적 판단에 의거하여 총각에 대한 징벌을 중지하는 재량권을 발동하였다. 호랑이는 산신이 징벌하려는 표적은 산신에 대한 不敬함이지, 외롭고 가난하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선량한 심성이 결코 아니라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헤아렸던 것이었다. 총각이 보여준 타자에 대한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이해 - ‘나도 춥지만 바람막을 집이 없는 호랑이는 더욱 춥겠구나, 그러니 이런 추위는 참을 만한 것이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총각의 공감능력과 정서적 유대감을 잘 보여준다. 총각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26)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 쥐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거든. 아,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못 덤벼들지.

그리고 이런 수평적 이해는 드디어 호랑이의 마음에 닿아서 共鳴하기에 이르렀다. 호랑이는 총각에게 그와는 동떨어져 있는 남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공동체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엿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호랑이는 총각이 자신과 이질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공생관계’에 있다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호랑이는 총각의 삶을 처음 목격했을 때에는 징벌을 철회하는 소극적 행위에 그쳤지만, 이후로 총각의 자신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자 그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다. 호랑이가 처음에 징벌을 철회한 것은 총각의 행위가 불가피한 환경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며 신성모독이라는 불경한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그런 情狀을 참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후로 몰래 총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호랑이를 걱정하는 총각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태도가, 총각의 호랑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진정성을 담보해줌으로써 총각에 대한 호랑이의 신뢰가 확고해질 수 있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총각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단계를 넘어서 그의 환경조건 자체를 개선해줌으로써 총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그 결과 총각은 이런 호랑이의 적극적인 도움을 매개로 결혼도 하고 뒷간도 지어서 문제의 일탈행동을 원천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혹시라도 총각이 놀랄까봐서 길목에 조용히 요술보자기를 놓아두는 호랑이의 신중하고 섬세한 배려는 상당히 흥미롭다. 이는 단순히 호랑이의 출몰이 가져올 공포심이나 놀람을 경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차원의 배려가 담겨있는 것이다. 즉, 이는 無償援助를 베푸는 자가 원조를 미끼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모종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비굴함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시혜를 베푼다면, 총각은 불가피하게 호랑이의 권력에 종속되어 호랑이를 숭배하며 그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총각을 이른바 “갑과 을”의 지배종속 관계망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애써 회피하고자 한, 호랑이의 신중한 배려였던 것이다.

### 3. 보살핌윤리와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의 현재성

앞에서 논의한 이런 설화의 내용을 소통·공감·보살핌의 측면에서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자. 가난한 총각이 마을이 아닌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산신령은 이 산의 주인이다. 총각은 말하자면 산신령의 집을 빌려 살아가는 세입자에 비유할 수 있다. 너무 추워서 아무데나 배설을 하는 몰지각하고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세입자가 못마땅한 집주인은 대리인(집행관)을 불러서 그를 강제퇴거 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총각은 마을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주변인이며 이방인이기도 하다. 집주인인 산신령의 절대적 지배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산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인 것이다.

산신령은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총각과 소통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저 타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총각을 비난하고 징벌하려고만 했다. 산신령에게 총각은 자신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신이 돌봐야 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그래서 절대적 지배권을 사용하여 통제해야 하는 귀찮은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다녀온 호랑이의 사건보고를 통해 산신령은 비로소 총각에 대한 왜곡되고 냉정한 시각을 조정하여 총각에 대한 호랑이의 온정적인 행정처분을 용인해준다.

허구적 서사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상상력을 배양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sup>27)</sup> 이 설화는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 당면하지 않은 도덕적 딜레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보는 도덕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설화에서 총각을 징벌하라는 산신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간 호랑이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고 있다.

호랑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 맥락적 조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각각 그 행위의 의도와 情狀을 참작하여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결국 후자를 택함으로써 이른바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하게 된다.<sup>28)</sup> 만약 애초에 산신령이 의도

27) 문학과 도덕적 상상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14, 문학교육학회, 2004를 참조요.

28) 보살핌의 윤리에 관해서는 신동희·이지희, 「“보살핌 윤리”를 적용한 과학교육 가능성 탐

했던 대로 호랑이가 총각을 가차 없이 징벌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편적 정의를 앞세운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의 일률적 집행으로는 사회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뒷간을 짓지 못한 총각은 다행히 호랑이에게 물려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뒷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이 총각이 아닌 다른 사람도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결과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그에 공감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이를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보려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설화에서 잘못을 징계하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산신령이 남성 산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면, 총각에게 공감하면서 그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피는 호랑이의 모습은 여성 산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즉, 이 설화에서 산신령이 정의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다면 호랑이는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살핌윤리와 정의윤리는 상호보완하면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정의윤리가 약화되면 사회의 가치질서가 무너지고 온정주의에 함몰될 수 있으며, 보살핌윤리가 약화되면 사회의 법 집행에 있어서 인간의 삶의 진실을 외면한 채 잔혹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의윤리와 보살핌윤리의 특징을 다음 면에 제시할 표1)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호랑이는 흔히 힘없는 민중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폭력이나 심리적 공포를 상징한다. 민중은 이런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절대적 힘에 기대어서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도 한다. 사실상 인간사회에서 가장 강대한 폭력은 국가의 공권력이며 인간은 이런 국가 공권력의 보호 아래서 안심하고 살아가는바, 적들의 침략을 막아 생명을 보호해주고 도적들의 약탈로부터 재산을 지켜주고 억울한 사정을 訟事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sup>29)</sup>

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권 5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12를 참조요.

29) 서대석, 앞의 글, 200면을 참조요.

표1) ‘보살핌윤리’와 ‘정의윤리’ 비교<sup>30)</sup>

	정의윤리	보살핌윤리
근본적인 도덕적 명령	의무, 당위, 정의	책임, 덕, 보살핌과 비폭력
도덕성 성향	권리와 정의윤리는 남성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남	보살핌과 책임감의 윤리는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남
도덕성의 요소	나와 타인의 권리, 독립과 개체성, 공정성, 호혜성, 규칙과 법칙성	나와 타인에 대한 책임, 관계와 상호의존(관계성 및 상 호성), 보살핌과 연민, 우정, 조화, 이타심, 자기희생, 헌신
도덕적 행위의 매개 과정	보편적 원리에 근거한 규칙	맥락에 근거한 보살핌의 활동
도덕적 딜레마의 본질	갈등을 일으키는 권리, 이기고 지는 경쟁, 동일한 평등적 분배, 개별적 책임	조화와 관계성의 위협, 주요받는 협동, 요구와 맥락 에 따른 형평성 분배(맥락성), 공동의 책임
딜레마 해결의 인지적 과정	형식적, 연역적 논리적 사고, 명령에 따라 상황에 대응	구체적 귀납적 사고, 공감을 통해 상황에 대응
도덕적 행위자	분리된 개체적 자아, 독립적 자아	연관된 동반적 자아, 타인과 반응하는 자아
정서의 역할	부차적임	보살핌과 연민의 중요한 동기
철학적 지향	합리적, 보편적인 정의 윤리 보편주의 자유주의, 개체주의	현상학적, 상황적 덕의 윤리 상대주의 공동체주의, 지역주의
발달관	자율성, 동일성, 독립성, 형평성	관계성, 독특성, 친밀감, 평등성
난점	원자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남성적	연교주의, 지엽주의, 친애주의, 여성적

30) 심성보, 「‘보살핌’의 윤리와 도덕교육론」, 『초등교육연구』 9, 부산교육대 초등교육연구소, 1996, 1~26면. 신동희·이지희, 「“보살핌 윤리”를 적용한 과학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권 5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12, 960면에서 재인용.



선거철이 되면 부쩍 더 자주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의 현장을 누비며 부지런히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거친 손을 쥐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굽은 등을 두드려주는 풍경이다. 이는 보살핌의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장면인 셈이다. 이 설화에서 지배 권력을 쥔 산신령은 그 공권력을 가난한 형편 때문에 뒷간조차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인 총각을 징벌하는 데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백성의 고달픈 삶을 해결해줄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고심했어야 한다. 공권력은 균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거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이웃을 위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을 타자의 시선으로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보살핌윤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건강한 번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설화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유리된 주변인이며 이방인으로 형상화되는 총각의 모습은, 일견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처지를 연상케 한다.<sup>31)</sup> 사회적 약자(이방인, 소수자, 장애인 등)와의 소통을 거부하거나 공감능력이 부족한 주류사회의 몰이해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과 멸시, 차별을 쉽게 정당화하곤 한다.

산신령(최고 권력자, 행정수반)은 이 설화에서 구중심처에 깊숙이 들어앉아 눈에 거슬리는 총각의 배설 행위를 멀리서 보며 분노하였고 마침내 호랑이를 보내 징벌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보편적 정의를 앞세워 법집행을 강행하려는 산신령의 강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총각은 산신령의

31) 문화공동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편견과 소통의 부재로 곤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본의 아니게 공동체사회에 끼치는 불편사항을 타자의 시각에서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즉각적인 행정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이 설화의 산신령이 보여주었던 고압적인 공권력 행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돌보는 열린 의식이 요구되는바, 이는 단지 감정적 동조만이 아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천적이며 인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런 문제의식은 김대균, 「내러티브 도덕교육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 『윤리교육연구』 21,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27면을 참조요.

권력을 떠받치는 존재가 아니라, 산신령의 보호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취약계층의 소외된 시민이었다. 이처럼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오히려 징계를 명한 不通過 권위주의의 지배 권력을 대신해서, 행정의 일선에 나선 공무원인 호랑이는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서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신령과는 달리 보살핌윤리에 의해서 민생을 돌보는 호랑이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무엇보다 “편을 가르지 않고” 호랑이를 걱정해주었던 총각의 태도로부터 촉발될 수 있었다. 그는 행정당국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무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라, 공무원의 노고를 공감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을 줄 아는 수평적 이해와 소통의 정신을 먼저 발현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이 설화는 행정서비스의 주체와 행정력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동체에 뿌리내릴 때에, 그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현재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 4. 마무리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그 동포의 필요와 이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서는 최고의 완전한 정의도 수립될 수 없다.”<sup>32)</sup>는 니버의 언술이 주는 긴 울림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한 편의 짧은 설화를 해석할 때 발견되는 사용자들 간의 이해의 간극은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 대해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놓고 있을까. 우리는 아마도 매일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편협한 시각과 불합리한 신념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문학의 지향점은

32) 라인홀드 니버,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1992.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 14, 문학교육학회, 2004, 74면에서 재인용.

결국 타자를 공정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 자신부터 수양하는 윤리적 태도와 맞닿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설화읽기라는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도달점 역시 학습자의 도덕적 감수성을 배양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인지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감수성의 수준에서, 설화에서 전개되는 불의한 사건 전개에 정당하게 분노하고 선이 악을 이기는 정의로운 이야기에서 정서적 희열을 느끼며 아름답게 펼쳐지는 낭만적 미담에 공감하며 심리적 위안을 받는 건강한 정서를 기르는 데에, 설화문학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33)</sup> 그리고 그런 건강하고 풍부한 정서가 현대인의 가슴속에 살아있을 때에 공동체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연역적이거나 일반론적인 가설이 아닌 구체적인 서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상황을 통해서 수용자의 도덕적 상상력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에게 무한한 해석의 개방성을 허락하는 설화작품이 그런 교육적 의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4)</sup> 수용자가 문학작품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을 잘 길러주는 것이 문학교육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제일 것이다.

33) “올바른 행위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에서 괴로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도덕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재찬, 앞의 글, 72면.

34) “도덕적 상상력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일반화된 법칙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그 문화적 맥락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데 있다. 그로부터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위 했는가 아니라 그 맥락에서 왜 그렇게 행위 했는가에 관한 설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상상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도덕 교육의 최적의 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학, 특히 서사물을 통한 교육인 것이다.” 정재찬, 앞글, 50~51면.

## 참고문헌

## 1. 단행본

『韓國口碑文學大系』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서정오,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2, 현암사, 2004, 1~300면.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569면.

## 2. 논문

강명관, 「‘문학주의’에서 벗어나 문학 외부와 소통하기」,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92~96면.

김기호, 「한국 호랑이 설화의 주제별 유형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5, 대구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135~172면.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형상 -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77~106면.

김대균, 「내러티브 도덕교육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 『윤리교육연구』21,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27~48면.

김수현,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어문학연구』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197~227면.

김용현, 「해석학 기반의 독일문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고찰 -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51,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45~65면.

김정현, 「왜 서사인가? -서사 윤리학 입문-」, 『해석학연구』17, 한국해석학회, 2006, 213~245면.

김정현,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고전과 고전해석」, 『해석학연구』23, 한국해석학회, 2009, 1~29면.

박혜숙, 「호랑이 이야기의 아이러니」, 『동화와 번역』12,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107~128면.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서대석, 「호랑이이야기」,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192~209면.

신동희·이지희, “보살핌 윤리”를 적용한 과학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32권 5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12, 954~973면.

유강하·김호연, 「공자의 인문학 강의와 인간의 삶 - 공자의 문학교육과 역사교육의

- 인문치료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학연구』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453~483면.
- 이강옥, 「신라 설화에서의 존재 간 소통양상과 의미-삼국유사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227~256면.
- 이민용,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기능」, 『독일언어문학』43, 한국독일언어학회, 2009, 225~242면.
- 이승환, 「‘뭉’의 기호학적 고찰-유가전통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3, 한국기호학회, 1997, 42~75면.
- 이인경, 「<구북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263~306면.
-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20, 국문학회, 2010, 157~189면.
- 이인경,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다층적 의미 -<박장군과 이무기> 설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25, 국문학회, 2012, 217~255면.
- 이지영, 「女·男 山神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 연구 -호랑이의 兩性的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37~282면.
- 정미라,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36, 범한철학회, 2005, 211~233면.
-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14, 문학교육학회, 2004, 41~47면.
- 정재찬, 「문학교육을 통한 개인의 치유와 발달」, 『문학교육학』2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77~102면.
-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이해에 기반한 서사추론 교육」, 『국어교육』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439~465면.
-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리콕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3, 한림과학원, 2009, 69~98면.

The aspect of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Feeling empathy, The Ethic of care” observed in the Korean Tiger story, *<the magic cloth-wrapper a tiger offered>*

Lee, In-gyung

I pondered on how and in what ways to develop our characters and moral imagination by reading the Korean Tiger story, *<the magic cloth-wrapper a tiger offered>*. The story is about the very poor-man destined to be punished by reason of having a pee and poo everywhere in the mountain in winter. But the tiger, who was dispatched by the Mountain-God to punish the offender, only to care for him and eventually helped him out to get married and be rich. It was because the tiger was deeply moved to hear that the poor-man talked to himself worrying about the tiger's feeling cold. Ever since then, the tiger had repeatedly observed that he expressed his sympathy of the tiger. At last, the tiger impressed by his empathy with the tiger, made up its mind to help him rich. So, the poor-man could cure the sick daughter of a rich man owing to the magic cloth-wrapper which the tiger had provide for him, and consequently he got married to her to be rich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In this story, I observed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nd feeling empathy presented between the tiger and the poor-man. In fact, the poor-man could be exempted from punishment by the Mountain-God because he had voluntarily expressed his sympathy with the tiger. And the tiger practiced its "Ethic of care" for him by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is storyline has very important meaning which can be applied to our modern social life. Especially, I would emboss the tiger's carrying out "Ethic of care" showed to the poor-man. I supposed communication, feeling empathy and "Ethic of care" are very necessary for the happiness of our community today. That is, the story shows us we all in our community can be happy only when the social

concept should become widely accepted in the community, that the administrative subject and the citizen are "we" who cooperate in harmony for our common interests and happiness.

In conclusion, this paper could prove this story is a work of great educational value, that can let the students know about the ethics of community by effectively arousing their moral imagination.

Keywords : Korean Tiger story,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Feeling empathy, Ethic of care, Literature education, Moral imagination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